

“안전한 무주 군민이 먼저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교육·청년·인구정책 등 11대 분야 공약 확정

군민정치시대를 열겠다는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의 공식 슬로건을 ‘안전한 무주 군민이 먼저다’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의 위기와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 경제위기에 선 군민을 지켜내고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에서 군민(사람)을 주제로 민선8기 공약을 설정했다”고 그 배



경을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교육, 청년, 태권사태, 일자리/인구정책 등 11대 분야 등 세부 공약을 확정하고 군민 모두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그 첫 약속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 하겠다”며 “갑질, 재난재해 등 안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용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디딤돌을 놓겠다”며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어린이형 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기본소득 실현 청년 안정기금 적립 농민수당 확대 지급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무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소상공인 안정기금 적립을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는 “하루빨리 군민들이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발전 위해 군정 연속성 필요”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선관위 후보등록 마치고 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12일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전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재인 군민을 위하는 선관위 마음과 진안군을 발전시키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통해 잘사는 진안, 행복한 진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년 전 혼란과 분열의 진안을 소통과 화합의 진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진안 발전을 위해서는 군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진안군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새로운 진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진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는 △진안읍 중심지 확장을 통한 생태환경도시 건설 △지역특화교육 지원 및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산림과학고설립 등 특성화·혁신학교 지원 및 육성) △국기산립고원 조성 및 산림관광특구 지정(지덕권 산림고원 조성 및 문화관광 테마파크·레저휴양시설 조성) △농민공약수당 120만원 확대 지급 △외국인근로자 축소 마련 및 농촌일손지원센터 설립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및 확대 △귀향정책 마련 △육아 및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 전 후보는 “진안군을 새롭게 디자인해 진안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진안=우태만기자

“농업인구 고령화 따른 농업활동 어려움 해소”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 벼 재배 농가 무인항공 방제 사업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황의탁 후보가 농민의 고충에 공약을 내놓았다.

황의탁 후보는 벼 재배 농가에게 무인항공 방제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황 후보는 무주군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라 농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공약으로 했다

방제 횟수 및 방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약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값 농기계 사업에 예산을 더욱 증대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의탁 후보는 “무주군 곳곳을 돌면



서 농민과 소통하다보니 위 공약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공약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물, 종합쇼핑몰로”

군, 확대 운영 위한 협의회 개최 O2O서비스 도입 의견 모아져

진안군은 12일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을 종합쇼핑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축제팀, 농축산유통과 흥산한방 및 로컬푸드팀, 농촌협력과 청년일자리 및 마을공동체팀, 관광과 관광정책팀까지 4개 부서 소속 6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운영 중인 진안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은 최근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상품 판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자사를 구축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안고원물을 농식품 위주의 쇼핑몰에서 공산품, 공예품, 관광 및 체험 상품까지 판매하는 종합쇼핑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역관광과 등 다양한 콘텐츠 상품을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제시하고, 진안고원물 역시 관광, 축제, 체험, 청년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마을여행 등의 상품 입점을 통해 종합쇼핑몰로 도약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논의했다.

또한 요즘 떠오르는 추세인 O2O서비스(Online to offline)를 진안고원물에 도입

할지는 의견이 모아졌다.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면 가맹점 및 생산자는 농산물·공예·체험·식당·관광을 진안고원물에 입점하고,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상품을 주문하거나 배송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 진안군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군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부서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관광지원 서비스, 교통, 관광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진안군 또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진안고원물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각 부서별 정보와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며 “진안고원물을 바탕으로 관광, 축제, 체험, 사회적기업 등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 형식으로 스마트시대에 맞는 종합쇼핑몰로 성장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홍낙표 무주군수 예비후보, 불출마 선언

홍낙표 무주군수 예비후보가 12일 무주군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대에 걸쳐 무주군수를 역임한 바 있는 홍낙표 전 군수는 “지난 1991년 정치에 발을 딛고 30여 년 걸은 정

치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그간 사랑과 신뢰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해 행복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무주군이 원한다면 미력하나마 적극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온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고



피력했다.

이는 무주군 안성면이 고향인 홍낙표 전 무주군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군수 선거 표 향방에 어떤 영향이 작을지 주목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전북 유일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체감도·지속 가능성 등 호평

무주군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가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민편의를 증진시킨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시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510건의 우수사례 중 서면 심사와 대국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한 우수사례(중점과제, 주민생활밀착, 탄소중립, 주민건강·안전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분야) 34건을 발굴, 혁신정책센터(텍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무주군의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는 △주민생활 체감도와 △확산의 용이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심사에서 두루 호평을 받아 주민건강·안전개선 분야에 선정이 됐다.

“동행서비스”는 치매고위험군(선별 검사결과 인지 저하 or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사각지대의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담당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족을 대신해 80세 이상 군민의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병원검

진부터 처방전 확인과 약품 구매,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171명이 동행검진을 받았고 133명이 치매환자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치매는 조기진단만 되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병원까지 이동수단 확보가 힘들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커 검진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동행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고위험군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협약병원 진단검사를 원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동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치매에 르신과 가족 모두의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큰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행서비스 관련 상담 및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로 (063-320-8604)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공무원들, 농번기 일손돕기 팔 건어

장수군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12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날 장수군 전 부서는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잠시 일상업무를 내려놓고 사과재배 등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지난 10일 재무과 직원 15명은 농번기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수읍 사과농가를 방문해 사과재배 작업 및 파원정비 작업을 도왔다.

같은 날 천천면사무소 직원들은 천천면 장관리의 인삼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거들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면 직원 10여 명은 인삼 꽃파기,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농민들의 고충을 해아

리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농가들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많은 농가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서 군청 직원들이 영농작업에 힘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배종수 천천면장은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농가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일손부족 농가 돕기 일한

도농상생일자리프로그램 진행

본격 영농철을 맞아 도시민들이 무주군 관내 영농현장에서 투입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무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자를 모집해 도농상생일자리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부산 등 외지에서 온 도시민 13명은 11일부터 덕유산원역 방문자센터에 숙박하며 안성면 수락마을 사과작목반에 투입돼 사과 열매수확 작업을 실시하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들은 서울(부)마시를 통해 농업 교육을 받은 도시민들로 15박 16일간 무주에서 마무리며 안성면 과수농가에 투입돼 농작업에 땀을 흘리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6~20일 이륜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

진안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0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진안군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56대다.

검사 일정은 16일 백운·성수·미령면, 17일 진안읍, 19일 상천·동향·안천·용담면, 20일 부귀·정천·주천면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상수도 공급중단사태 진상규명·보상 촉구

이한기 진안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이한기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12일 진안군청 브리핑실을 찾아 부실한 관리로 군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 광역상수도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기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진안군 전역에 예고도 없이 수도물 공급이 끊겨 대부분 식당은 영업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수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금산정수장의 관리소홀로 1을 4개면에서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단수되었는데 일부 지역은 하루가 지난 현재



까지 물 재난 상태에 있다.

이 후보는 “군수 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불편을 겪고 있는 진안군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린다”며 “인이하게 정수장을 관리한 수자원공사는 진안군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군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 진안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마을축제, 찾아가는 ‘마을축제기획단’ 운영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축제기획단’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용담면 회룡 1마을을 첫 시작으로 20여개의 마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마을축제기획단’은 올해 진안군마을축제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축제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저녁 바쁜 농사철에도 일을 마친 회룡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모여 올해 진행되는 마을축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축제의 주요 테마,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일도 했다.

한편, 2022년 제5회 진안군마을축제는 지역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박한 농촌형 축제인 진안지역의 30여개 마을과 기관·단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매주 화요일 민원실 근무시간 탄력 운영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증명 발급, 토지이용사상, 세금 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군은 농번기 민원실 근무시간 탄력운영을 위해 민원실 모든 팀이 근무조를 편성해 기간 동안 민원실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민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야 하는 농민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체납세 집중징수 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재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징수원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대출·채권 압류와 함께 부동·과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적으로 변호권을 영치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재영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선량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